

## 진정한 ‘리:부트’, 지평의 확장을 바라며 —『여성문학연구』 58호의 발간에 부쳐

‘문학의 위기’와 관련된 담론은 낡아버린 소문처럼 오랫동안 떠돌았다. 한 동안 문학이 재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했고 ‘~~이후의 문학’과 같은 이름을 걸고 나온 소위 ‘포스트 담론’들이 근래에 무수히 쏟아졌다. 물론 이로 인해 새롭게 편성된 부분도 있지만, 과연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회의감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모색이 다소 열기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15년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되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수년이 흐른 지금, 『여성문학연구』 58호는 새로움에 대한 탐구에 활력을 더하고자 “1990년대 여성·매체·문학”이라는 특집을 꾸려보았다. 이러한 제목을 정한 것은 여성문학의 ‘90년대성’을 다양한 관점으로 새로이 조망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캠브리지 사전이 정의하는 ‘리부트(Reboot)’의 의미 중 하나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다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이후’를 모색하기 위해 페미니즘 리부트와 인접한 1990년대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시 탐구될 필요가 있다. 『여성문학연구』 58호는 그런 의미에서 세 편의 특집 논문을 통해 90년대 여성문학을 다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90년대 문학을 재검토하며, 지금의 문학에 대해서도 본질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세 편의 특집 논문을 읽으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재:시작’을 고민하는 모색의 기회를 가져보실 수 있길 기대한다.

1990년대는 탈이념의 시대이자 다양한 사회 문화운동이 성장하였던 시기였다. 김보경의 「1990년대 『녹색평론』의 생태 담론의 형성과 이론적 기반」은 이러한 시기에 창간되었던 『녹색평론』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던 당시 생태 담론을 깊이 있게 살핀다. 『녹색평론』의 의의를 확인할 뿐 아니라 『녹색평론』과 1990년대 생태주의 담론이 생겨난 토대가 된 당대의 지성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것을 역사화하여 90년대 ‘생태적 전환’을 문학사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은 생명, 영성, 여성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어

로 김종철 및 『녹색평론』의 생태주의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양상, 의의, 한계를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당대 생태운동에 여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반생태적인 문명이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체제에 저항하는 대안적 가치로서 여성적 원리 혹은 여성성이 주목”되었다는 의미에서 여성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본 점이 주목된다.

박형숙의 「팔루스에 대한 여성 욕망과 유동하는 정체성-신경숙 은희경 전경린의 소설을 중심으로」는 1990년대 여성소설에서 여성정체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해보는 연구다. 이 글은 성(sex)과 성적체성(sexuality) 모두 젠더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여성의 정체성은 남근에 대한 상상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뜻하는 팔루스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 신경숙, 은희경, 전경린의 소설을 깊이 있게 비교 고찰했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거나 스스로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여성의 정체성이 여성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는 단일하지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유동”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도희의 「1990년대 소설가 되기의 여성적 욕망-신경숙의 『외딴방』을 중심으로」는 “90년대 소설가 되기”라는 문제를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90년대적인 욕망’을 밝히기 위해 80년대 문예창작학과 시스템 및 현대문학 작가 계보가 구축되고, 90년대 초 문화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출판 및 비평계 전반에서 작가주의적 경향이 나타났음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90년대 소설의 특징적인 자기 고백이 사회적 욕망을 밝히고, 당대 여성문학의 욕망을 여성 작가의 사회적 조건과 연관지어보며 사적인 서사로 간주되었던 고백적 글쓰기나 성장 서사를 재평가하려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글 중 한 구절을 빌려보자면, 90년대 문학을 재고찰하는 것은 “역사의 한 시기를 의미화하는 것을 넘어서 고착화된 규범과 체제를 의문시하고 문학의 좁은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특집 논문 외에도 여러 다채로운 성과를 다룬 논문이 실렸다. 여성문학 연구가 어떻게 다양하게 시도되고 그 저변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금-여기를 새롭게 읽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준다. 강성숙의 「어머니의 신체와 연결성-구비설화에 나타난 ‘어머니’의 용인과 배제 양상을 중심으로」는 구비설화에 보이는 어머니의 신체에 주목해 모성 또는 모성성의 의미를 재해석하려고 하였으며 모성(성)에 대

한 고정관념을 위반하는 설화 텍스트 속 여성의 태도, 말, 관계를 살피고 이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를 검토했다. 최근 서구적 근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생태적, 양성공존적 동양적 모티프에 주목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한데, 그러한 일련의 시도들 속에서 구비설화를 통해 해석적 대안을 모색하는 이 논문은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부장적 기획 하의 ‘어머니-신체’를 벗어나 가족주의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연결성을 지향한 논문이다.

남은혜의 「해방기 전후의 박화성 문학 활동 연구」는 기존에 충분히 주목되지 못한 박화성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다. 박화성이 1938년부터 해방 전까지 절필했던 시기를 공백기가 아닌, “박화성 문학 전후반부의 의미를 연속적인 시각에서 규명할 수 있는 단서”로 보고 해방기를 전후한 박화성의 행적과 문단 상황을 고려하여 그가 절필했던 시기에 ‘목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박화성의 문학 활동을 조명함으로써 목포 문인 네트워크와 박화성 문학을 겹쳐보는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해준다.

이진송의 「‘가부장-아내’의 젠더 수행성과 돌봄 노동의 윤리적 고찰—송경아,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와 영화 「박강아름 결혼하다」를 중심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주목받았던 주제인 ‘돌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이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을 분석틀로 삼아, 남성이 여성화된 돌봄 노동을 하며 ‘아내’라는 역할의 젠더를 수행하고 여성은 남성 젠더인 가장을 수행하고 있는 두 작품을 분석한다. 우리 사회의 돌봄이 여성의 것으로 젠더화되어 왔던 사실을 환기시키고 돌봄 노동의 윤리성을 고찰하는 논문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에 대한 매우 현재적인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최희진의 「김춘수 문학의 여성 인식에 나타난 이상화/대상화의 기제 연구」는 김춘수 문학에 나타나는 여성 인식을 분석했다. 여성의 존재를 추상화, 이상화하는 시인의 사유 속에 대상화의 기제가 작동되고 있지 않은지 탐문하며 그것이 “성녀로서의 창녀라는 남성 중심적 판타지를 재생산”하는 부분을 지적한다. 나카자와 케이의 소설 및 1980년대 영화들에 대한 김춘수의 언술 등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는 점이 흥미롭다. 시인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을 벗어나 김춘수의 문학 텍스트 자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그의 여성인식을 재독해보려는 여러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란다.

장다빈, 한예원의 「포스트네트워크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폭력성 연구-“킬링이브”와 “구경이”를 중심으로」는 개인 취향 기반 콘텐츠를 연속 시청할 수 있는 포스트네트워크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폭력성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에는 안타고니스트로서 유혹, 복수 등 관습적 기능만을 수행했던 폭력적 여성인물들이 ‘팜프 카스트라트리스’로서 어떻게 주변 여성 인물들과 상호작용하고 유동적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지를 고찰하여 현대 여성 서사의 새로운 시도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증언에 관한 두 개의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논문도 있었다. 먼저 선우은실의 「한국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 여성 서사의 계보화 및 구술사/생활사적 성격 탐구-박완서 『나목』, 황정은 『연년세세』를 중심으로」는 한국 전쟁 시기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박완서와 황정은의 작품을 분석하며 “각 서사가 (재)증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성 서사를 이어 쓰는 담론화의 작업의 재-증언적 성질을 함께 고찰”한 논문이다. 구술사/생활사적 관점의 독해를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서사의 계보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경화의 「AI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언할 수 있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증언 활용 AI콘텐츠의 의의와 한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증언을 AI기술과 접목한 국내 최초의 사례인 AI 인터랙티브 증언 콘텐츠 ‘영원한 증언’의 제작, 활용, 효과를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힌 논문으로, “가상 대화라는 간접성, 증언자와 질문자의 비대칭성 등은 본 콘텐츠가 안고 있는 재현의 윤리 문제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이루어낸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검토하며 ‘증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점에서 시의적이며, 여성문학의 관심 영역이 어떻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 될 것이다.

이번 호의 서평으로는 이소희·이경수 등의 공동저작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소명출판, 2022)에 대해 비평한 염선옥의 「영토허·탈영토허 속에서 찾아지는 페미니즘의 관계학」이 실렸다. 이 책은 고정희 시인 30주기에 발표한 연구논문들을 추려 출간된 연구서로, 고정희 문학 연구의 결실이자 새로운 독해를 수행하고 있는 책으로 의미가 깊다. 염선옥은 이 책에서 남성 권력 하

에 억압과 고통을 받았던 여성의 삶과 경험이 여성 자신의 목소리로 발화된, 고정희가 말하는 ‘실존의 획득’이자 믿음을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여성문학의 의미를 세심하게 읽어낸다. 그리고 이 책이 고정희 문학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고정희를 주축으로 하여 ‘실존을 획득’해가는 연대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여전히 타자로서 이 사회에서 수난을 겪는 여성의 현실을 환기시키며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여성문학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추천 석사논문으로 조민형의 「김말봉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를 소개한다. 김말봉의 활동과 작품세계를 아나키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려 한 시도가 돋보이는 논문이다. 조민형은 그간 통속성과 여성성, 모성 등으로 독해되었던 김말봉의 문학의 정치성을 김말봉이 유림의 독립노동당에 가담하여 부녀부장이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규명하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그로 인해 김말봉 문학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김말봉 문학을 읽는 하나의 새로운 통로를 제공해준다.

이와 같이 『여성문학연구』 58호는 특집과 일반 논문을 포함해 10편의 논문과 추천 석사논문, 서평을 실었다. 기존의 문학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지점들을 확보하며 지금의 현실에 대응하려 노력하는 다양한 여성문학자들의 분투를 엿볼 수 있는 글들이다. 여성문학의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하고, 진정한 ‘리:부트’를 모색하는 글들로 이번 호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여성문학 연구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역동적으로 나아가고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편집위원 김지윤